

# 1만2000원 떡볶이 주문에 배달비 4500원...오해와 진실은?

## 소비자·점주 모두 배달비 인상으로 어려움 호소 배달비 인상으로 인한 수혜자 두고 '갑론을박'

지난 7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떡볶이를 주문하려던 직장인 A씨는 적잖이 놀랐다. 떡볶이 1인분 가격이 3500원인데, 최소 주문금액은 1만2000원, 배달비는 4500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떡볶이를 배달시켜 먹으려면 최소 주문금액의 37.5%에 달하는 배달비를 포함해 최소 1만6500원을 내야 했다. A씨는 결국 배달을 사지 않고 직접 분식집에 가서 포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배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곳곳에서 배달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데다 단건 배달(한 번에 1건만 배달해주는 것) 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배달비는 전체 주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대행업체가

올 들어 수수료를 500~1000원씩 인상하며 지난해만 해도 평균 3300원이던 수도권 배달 대행료는 올 들어 평균 5000원 수준까지 올랐다.

이러자 아예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포장하러 가거나, 아예 매장을 방문해 식사하는 것이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사용자 수(MAU)는 상반기 내내 감소세다. 배민의 MAU는 지난 3월 최고점을 보였지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된 이후 4월 2019만명, 5월 1993만명으로 큰 폭 줄었다.

배달비 상승이 힘든 것은 소비자 뿐만이 아니다. 배달 수수료는 음식점 점주와 소비

자가 나눠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비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전체 주문의 절반은 배달이 차지하는데,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배달비가 건당 4000~5000원에 달한다"며 "재료비에 인건비, 배달비까지 내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배달비 스트레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배달비에는 비나 눈이 오거나 폭염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할증 제도까지 적용된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같은 날씨에는 배달비가 500원씩 추가 되기도 한다.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폭염과 소나기로 할증이 붙어서 300미터 거리의 배달비가 6000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만 배달비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례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 가맹점주들은 1만원짜리 음식

식을 팔 때 배달 플랫폼이 7000원 이상을 챙겨가고, 식당 주인 손에는 실제로 2400원도 남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다.

하지만 배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짚어 준다.

배민 관계자는 "1만원 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배민이 가져가는 수수료 수입은 주문 중 개수수료 6.8%에 해당하는 680원이 전부"라며 "나머지 배달비는 모두 배달 대행업체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대행업체는 정작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소속 배달원인 라이더에게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면 우리도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한다.

라이더들은 라이더들대로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전체 배달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분명히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이 돈의 극히 일부만 가져간다는 이상한 셈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배달비는 과연 어떻게 정하는 걸까.

국내 주요 배달 3사인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는 배달비가 각각 거리와 시간, 날씨, 주문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배달 대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달비는 배달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불가갑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체에 배달을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비에 따라 배달비가 5500원까지 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배달비는 제각각이어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비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올해 5월 발표한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련 외식업 분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2만원 어치를 배달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응답자들이 꼽은 적정 배달비는 평균 1618원 정도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평균 배달비 4000~5000원과 최대 70% 정도까지 차이는 금액이다.

정승호 기자

## 삼진어묵, 추석 겨냥한 어묵 선물세트 출시



삼진어묵은 추석을 맞아 실속형 프리미엄 어묵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선물세트는 이금북명품세트 특호(7만 5000원), 이금북명품세트(5만 8000원), 삼진프리미엄세트(4만 8000원), 1953세트 1호(2만 8000원), 1953세트 2호(3만 8000원) 등이 준비됐다.

이금북명품세트 특호(약 2.6kg)는 문주 2종(스모크치즈, 호두아몬드)과 명품어묵탕(매운맛, 순한맛), 전복어묵, 홍게살어묵, 훈제오리어묵에 해물다시락, 와사비맛담소스, 어묵탕스프, 건더기스프 등을 담았다.

이금북명품세트(약 2.3kg)는 한가족 모듬어

묵, 우리가족 깐깐한 버섯어묵, 우리가족 깐깐한 아채말이어묵, 어부의바(아채맛, 오징어맛, 통새우맛, 매운맛), 어간장소스, 와사비맛담소스, 어묵탕스프, 건더기스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처음 출시한 삼진프리미엄세트(약 2kg)는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간단하게 요리가 가능하고, 간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어묵과 소스, 스프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품은 한가족 모듬어묵, 매생이어묵, 해물찌집이, 햇팽초말이, 우리가족 깐깐한 크림치즈볼, 우리가족 깐깐한 감자볼, 어묵탕스프, 삼진어묵 건더기스프, 와사비맛담소스 등이다.

1953세트 1호(약 1.8kg)와 2호(약 2.3kg)는 실속형 선물로 제격이다.

삼진어묵 추석 선물세트는 오는 9월 2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 삼진어묵 전국 직영점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한편 삼진어묵은 추석 선물세트 얼리버드 기획전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삼진어묵 공식 온라인몰에서 선물세트 구입 시 최대 19%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유나 기자

## 오랫동안 냉장고 문 안열리면 가족에 알람...삼성 '스마트싱스 홈케어'

### 6대 서비스 중 하나 '인공지능(AI)' 구성...시니어 이용자들에게 유용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홈케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니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스마트싱스 홈케어는 지난 2월 론칭한 통합 가전 솔루션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6대 서비스 중 하나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제품 고장 진단, 제품 관리, 패밀리케어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냉장고 사용 빈도를 분석해 혼자 살거나 멀리 사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케어 기능이다.

냉장고 문이 미리 설정해 놓은 시간 동안 계속 닫혀 있으면 등록된 가족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림이 전송되고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고령자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냉장고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착안한 기능이다. 2018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싱스 연동 가능한 냉장고에서 지원된다.

또 지난해 도입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봇 AI'를 활용한 패밀리케어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는 데에도 유용하다.

스마트싱스 홈케어 서비스 중 '패밀리케어' 항목에 로봇청소기를 연결하면 집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하이 빅스비, 도와줘"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미리 설정해둔 가족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알람을 받으면 집 안의 다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거나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 적용된 '우리집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집 안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집 모니터링 기능은 원격으로 로봇청소기를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전송 받을 수 있어 혼자 있는 가족과 반려동물 돌봄에도 유용하다.

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우리나라에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전 제품의 돌봄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서비스를 변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지속 발전시켜 가전 제품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진에어 "카카오페이 이용하고 할인 받으세요"

진에어는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결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프로모션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8월의 카카오페이는 이날부터 10월 29일 사이에 유효하는 국내선,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항공권 결제 금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제공된 할인 쿠폰은 추석 연휴 기간 등 날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오유나 기자

할인 쿠폰은 ▲5천원권(항공 운임 5만원 결제 기준) ▲3만원권(항공 운임 10만원 결제 기준)으로 구성됐다. 단, 3만원 할인 쿠폰은 매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00명에게만 발급된다. 이와 더불어 진에어는 내륙 여행객들을 위한 김포~포항, 김포~사천 노선 전용 2만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진에어와 카카오페이의 공동 제휴 이벤트다.

## 2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1.5% ↑ ...수입 비중 역대 최대

### 통계청,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발표

올해 2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자제품과 의약품 등이 늘어나면서 전체 제조업 제품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12.7(2015=100)로 1년 전에 비해 1.5% 증가했다.

이는 내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국내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지수는 지난해 1분기(3.4%), 2분기(9.1%), 3분기(1.9%), 4분기(3.6%), 올해 1분기(1.6%)에 이어 6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국산 제품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국산은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2분기에 도 국산은 1.4% 줄었고, 수입은 8.6% 증가

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2.0%포인트(p) 뛰었다. 이 비중은 역대 최대치로 최근 4개 분기 연속 30%대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산은 금속가공과 화학제품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화장품 수요가 줄었고, 주방용품 수요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의 경우 전자제품 업종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수입이 늘었고, 2차전지 제조용 원료, 반도체용 식각제 등 화학제품 업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제품과 의약품이 각각 15.5%, 17.1% 늘었다. 반도체 관련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제품 공급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공급은 2.5% 증가하면서 4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특히, 국산(2.2%)이 플러

스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그간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금속가공은 국산(-10.2%), 수입(-1.0%)이 모두 줄면서 9.4% 감소했다.

재화별로는 최종재 공급이 1.1% 줄었다. 소비재와 자본재 공급이 각각 0.4%, 2.2% 모두 감소한 탓이다. 반면 중간재 공급은 3.4% 증가했다. 국산은 0.8% 줄었지만, 수입이 13.9% 늘었다.

수입 점유비를 따져 보면 담배(30.3%·7.2%p), 의복 및 포피(35.2%·6.9%p), 의약품(41.9%·6.1%p) 등에서 상승했고, 기타 운송장비(26.9%·-4.1%p)는 하락했다.

최종재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로 1.3%p 뛰었다. 소비재는 30.8%로 2.5%p 상승했고 자본재는 37.8%로 보험세를 보였다.

중간재 수입 비중은 29.1%로 2.6%p 올랐다.

이슬비 기자

## 니콘내콘, '여행 카테고리' 신설·운영

스타트업 더블엔씨가 운영하는 기프트콘 거래 플랫폼 '니콘내콘'은 여행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공식 입점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니콘내콘은 최근 여행과 관광 산업 분야 관련 고객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점을 주목해 여행 카테고리를 새롭게 개설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 이용률이 높은 니콘내콘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본 야놀자와의 논의를 통해 입점이 성사됐다.

니콘내콘은 3만원권, 5만원권 등 총 2종의



야놀자 상품권을 선보인다. 상품권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5%를 니콘내콘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니콘내콘 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뉴스사